

『삶을 나누시다 생명을 나누시다』 현대불교·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자비 나눠 더불어 사는 정토 열었다

'99 결산-전문가 좌담회

장기기증 활성화와 장애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 신문이 올 한해동안 25차례 각 사찰과 단체를 순회하며 펼친 캠페인에서는 2천5백여명이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6천2백여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캠페인의 효율성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겼다. 이에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해 보고 향후의 발전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 9일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 고려대 의과대학 서영석 교수,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과 수년간 방송을 통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던 KBS 라디오 유혜선 아나운서가 참석하고 본지 편집국장 위영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기기증은 나를 비우고 짐작 벗는길”

위영란



“시신기증도 삶을 나누는 숭고한 일”

서영석



“종교계·언론서 화장문화 정착 앞장서야”

유혜선

▲사회: 이런 캠페인 이 교계에서는 처음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장기기증과 화장문화에 대한 불자들이 일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기기증과 화장문화가 갖는 불교적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장: 불교적 관점에서 장기기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동체대바사상'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의 개체이지만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의 불교사상과 다름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내 스스로의 육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체 삶에서 존다는 것은 곧 내게로 오는 것을 의미하고, 기증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영석: 장기기증은 삶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시신기증도 간접적으로는 삶을 나누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차 생명을 다룰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신기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신기증도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거의 드문 편인데, 그런 차원에서 불교계에서 벌인 이런 캠페인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법장: 현대불교신론과 별인 을 한해 동안의 캠페인은 불자들에게 불교계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공헌했다고 봅니다.

사실 장기기증이나 화장유언은 깨달음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자기를 버릴 때 전체를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며, 이런 사상을 접목시킨다면 머지 않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불과 5년전과 비교해도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유혜선: 불교계에서 장기기증과 화장유언 캠페인을 벌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비교해서 안됐지만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형태로는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들다. 일반인들도 아직 생명나눔실천회가 하는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콘스님들이 같이 동참하면 불교신자들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따를텐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짐작을 버리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짐작없는 안됩니다.

▲사회: 유혜선씨 말대로 아직 불교계는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에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교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됐고 이제는 실천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혜선: 동감입니다. 5년전과 비교하면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장기기증의 필요성이 생각보다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장기기증운동을 전지 10년이 넘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의료계도 방송계도 캠페인을 벌일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불교와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단체들이 힘을 모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불교도 화장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착 화장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직 불교계에 이런 문화가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혜선: 종교단체에서 불꽃을 일으켜 준다면 방송도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과 연계해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
 법 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수덕사 주지
 서영석 고려대 의과교수
 유혜선 KBS라디오 아나운서
 사회=위영란 부장



○좌담회 참석자들은 생활불교를 통해 장기기증과 화장문화를 실천할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그렇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이념적 틀을 하나로 통합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혜선: 신장이 나빠 부석으로 하루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장기기증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장: 두 분 말대로 장기기증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곳이 종교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은 장려해주고요.

▲사회: 장기기증을 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얼마나 과학적이었습니까. 모든 종교단체에서 몸에 해로운 장기기증을 숙이면서 권할 리는 없지 않았습니까.

향을 들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육신을 부모님의 분신으로 생각해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본래 육신을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가 모여서 된 것으로,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유교사상때문에 이런 불교사상이 아직까지 통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서영석: 그래도 장기기증이나 화장문화 선도하는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종교간에 서로 뜻을 모아 운동을

힘을 모을 줄 압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바로 '힘'이 되는 게 아닐까요.

▲법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유혜선: 생명나눔실천회의 활동에는 기획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매우 수동적이었고요.

▲사회: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 마지막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장기기증 2천5백명 화장 6천2백명 서약 보살정신 확산 한몫...프로그램 다양화 과제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법장: 법·사회적 장치도 잘 마련돼 있어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기증이나 화장에 대해 '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도도 사회분위기도 성숙돼 있는만큼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혜선: 말씀대로 인식전환은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 실천방법이 문제인데요, 이 룬을 종교계가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장기기증에 있어 이런 문화가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혜선: 종교단체에서 불꽃을 일으켜 준다면 방송도 얼마든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과 연계해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전개해 나간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법장스님: 장기기증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이런 말씀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선사상을 21세기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현되려면 먼저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선사상이 널리 퍼지면 모두가 짐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장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에도 화장이 편리하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해요.

▲유혜선: 불교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고 교리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시대의 변화 흐름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만 했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에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기독교는 원하는 바에 맞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자리아' 중 '자리'에만 비중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교가 융성했을 때 불교는 바로 생활불교였습니다. 현재의 불교는 생활불교나 사회불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활불교가 안되다보니 '이타'가 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더불어 사는 사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 속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토대 하에 앞으로도 장기기증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서영석: 올해 우리나라 뇌사입법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장기기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는 뇌사자로 부터 기증받은 심장과 간장 등의 이식술이 행해지고 있고 인체해부학용 시신기증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혜선: 매스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특히 불교교리속에서 장기기증이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그래서 모든 중생의 삶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이 사회봉사 개념으로 인정받는 풍토를 불교계가 앞장서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삼·부·농·산·은·유·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신묘장구대라니 150만 독을 지승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저님 말씀에 대신주 워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씌이어서 열매가 열리게아는 마름말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제 강고는 이대라니로 고지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만 약초로 포기가 뛰여 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보노이드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이런분들한테 좋습니다.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 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간이나 담뇨 혹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결혼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픈 분

대悟居士(김봉서 원장)

차나 술처럼 드시고 지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97.11.6 / 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삼부농산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불교계에 世界正法具現 설법카세트出現!!

■극락과 천국
불교의 극락, 이슬람의 낙원, 기독교의 천국 중에서 필경 인류가 선택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파라다이스 우주 전 법계 최고의 유투 피아는 어떤 것인가?

■기독교의 신은 있는가?
성경과 그 논설을 근거로 이 나라 초유의 타교 뿌리 흔들기라고 할 세계 종교계를 진동시킬 슈퍼 강연 그 결론은?

이웃종교의 신! = 무신론주의 불교가 21세기 청법 세계화에 앞서 자체에 붙어 있는 비 불교적 요소들의 반성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큰 과제!

이제 민중교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 정법교의 파사현장을 위한 세계 선언 카세트 테이프가 마침내 나온것이다!!

이 두개의 카세트테이프가 기독교계의 연말 연시를 끔찍 얼어붙게 할것인가? 아니면 온통 뒤집혀지게 할것인가? 니이체는 신이 죽었다고 했으나 본인은 본래부터 없었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 피끓는 전국의 불자들이여! 과감히 일어서서 정법선양의 「부루나」가 되자!!

제 작 : 경남 밀양시 상량진읍 임천리 18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미타회 지도법사 釋 法 吼
총 판 처 : 서울 송파구 역삼동 5(02)745-6015 <두개 한세트 5,000원> 전국 불구서점에 있음
<단, 신도교육용으로 단체 주문시는 30세트이상이면 4,500, 50세트 이상이면 4,000원으로 헤드 리오니 농협 817-12-086193(임영진)으로 입금하시고 ☎(0527)351-2192로 주소, 성명을 전 화하시면 보내드립니다.>